

HUMANISM
ESTHETIC
LEADERSHIP
PROGRESSIVE SPIRIT
EXCELLENCE
RESPONSIBILITY
STEWARDSHIP

KYUNG HEE DENTAL SCHOOL NEWS LETTER

HELPERS

VOL.6. 2014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Vision

- 02 HELPERS 비전과 목표
- 03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인사말

SPECIAL REPORT

- 04 입시전형

NEWS

- 06 학교 소식
- 08 교실 소식
- 12 동아리 소식

FOCUS

- 14 해외 탐방

INTERVIEW

- 16 이상래 학장님 인터뷰

FOCUS

- 18 교실 탐방
- 20 문화 탐방

PEOPLE

- 22 발전기금과 동문 소식



최근 국내외 대학들은 스스로의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단합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가치를 마련하고자 이전까지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수정 보완 하면서 비전을 '존경하는 글로벌 치과의 양성'(Global eminence founded on professionalism and respect in oral health and science)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경희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로서 Global Eminence를 치의학 분야에서 치과의사로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확고한 역량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환자와의 상호간에 존경을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s)로서 Humanism(인본주의), Esthetic(개성과 조화), Leadership(지도력), Progressive spirit(진취성), Excellence(우수성), Responsibility(책임감), Stewardship(봉사정신)등의 7개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HELPERS라는 로고로 완성하였다. HELPERS는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의 치과의사로서의 성장 발전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동문 나아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우리의 전통으로서 가꾸어 가야 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의 힘찬 도약을 위해 "Let's go Global HELPERS!"

교육목적 우수한 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치과 임상의 및 치의학 연구자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치의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목표**
1. 치의학 제반 질환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식과 술기를 습득한다.
 2.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태도를 기른다.
 3. 환자와 사회에 대한 치과의사로서 책임감과 윤리관, 인간성을 함양한다.



모든 구성원의 목표의식과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HELPERS 6호가 발간되어 우리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치의학교육과 치의학 임상 및 연구에서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동시에 이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장학 이념 하에서 우리 대학은 최적의 구강 보건을 통한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일에 헌신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에서의 연구 결과를 임상에 접목시킴으로써 연구와 임상을 연계하는 중개의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영국 원장

우리 대학은 최근 수년 사이에 실력 있고 열정이 있는 교수들이 다수 충원되어 기초학문과 임상실습지도의 질이 높아졌으며 임상 교육 뿐 아니라 인문사회치의학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졸업 후 각자 속한 사회의 리더로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가 급증하여 의학계열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업적을 얻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센터(MRC)를 비롯한 수십억원 이상의 국가 연구과제를 다수 수주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간혹 우리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표현됩니다. "너무 냉정하고, 자신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이며, 너무 바빠서 차분히 될 물어볼 수도 없고, 성질도 급해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환자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치과의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밑바탕에는 소위 과학적으로만 교육시키는 우리의 문제점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의학과 치의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생멸과정인 생로병사의 한 부분에 개입해야 하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환자와 의사, 가족, 사회와의 관계에서 희노애락의 극명한 변화와 조우하게 되는 의학과 치의학의 종합적 측면을 간과하였다는 성찰을 합니다. 다행히 의학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경제학적 측면 중 생물학적 측면 만 강조해 옴으로써 인간의 질병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접근 능력의 부족에 대한 자기 성찰을 통해 의학과 치의학학을 다른 관점에서 파악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를 대학의 교육 과정 편성에 그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교는 꾸준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 올해의 세계 대학 평가에서 200위권, 국내 종합 대학 가운데서는 6위에 올라 매년 위상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도 이에 발맞추어 여러 외국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인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동안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세계화에 정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대학은 2015년부터 6년제 치과대학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치의예과 신입생의 모집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대학의 위상을 더욱 높여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목표의식과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교직원과 학생을 포함하는 교내 구성원과 동문,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2월
 치과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원장 박영국

올 가을, 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의예과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이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학부과정으로 복귀함에 따라, 올 가을 2015학년도 예과 1학년에 들어올 치과대학 신입생을 선발한다. 치전원 신입생 선발은 2016년까지 마지막으로 선발하며, 4년제에서 6년제로의 전환에 맞춰 2017년에 치과대학 본과 1학년이 되는 예과 신입생을 올 가을 선발하게 된 것이다.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도 의과대학으로 복귀함에 따라, 올 가을 대학입시에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의과대학은 기존의 한의과대학과 함께 의,치,한을 형성하며 최상위권 이과학생들의 뜨거운 관심학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은 80명의 정원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56명을 선발하고, 24명은 기존의 치전원 체제에서처럼 대학을 졸업한 학생(학사 취득자)을 대상으로 본과 1학년으로 학사편입을 시행한다. 이 선발방식은 4년간 유지되며, 4년후부터는 치전원 체제로 전환되기 전처럼 80명의 치의예과 학생을 선발한다(표 참조).

올 가을, 2015학년도 치의예과 56명의 선발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시에서 28명, 정시에서 28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수시에서는 리더십/봉사 인재, 국제화 인재, 과학 인재, 그리고 문화 인재를 선발하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통해 11명을 선발하고,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17명을 선발한다. 또한 정시에서는 가, 나, 다 군중 가군에 포진되어 있으며 수능중심으로 2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치과대학으로의 전환이 치과대학/치전원과 경희대학교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2015학년도 신입생 선발 일정

•치의예과 56명: 수시 28명, 정시(가군) 28명 •치의학전문대학원 80명

학년도	치의예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대학 학사편입
2015	56명	80명	-
2016	56명	80명	-
2017	56명	-	24명
2018	56명	-	24명
2019	80명	-	24명
2020	80명	-	24명

2015학년도 수시모집 일정

구분	내용	일정	비고
2015학년도 수시모집 일정	원서접수	2014. 9. 11(목)~15(월) 17:00	
	1단계 합격자 발표	2014. 10. 21(화) 16:00	
	논술고사	2014. 11. 15(토)~16(일)	논술우수자 전형
	면접고사	2014. 10. 25(토)~26(일)	학생부종합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2014. 11. 19(수) 16:00
		2014. 12. 6(토) 24:00	논술우수자전형
2015학년도 정시모집 일정		추후 공고 예정	



2013학년도 2학기 외래교원 위촉

우리학교는 2013학년도 2학기 외래교수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외래교수는 신규 20명이고, 재위촉은 202명이다. 원내생에 대한 강의와 임상 실습지도 및 본원의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한 외래교원으로 위촉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이다.

2013학년도 2학기 교원인사

- 해외장기연수 복귀 소아치과학교실 최성철 부교수
- 해외장기연수 치과보철학교실 배아란 부교수
- 치주과학교실 강경리 조교수
- 치과교정학교실 김성훈 부교수
- 연구년 복귀 악안면생체공학교실 권일근 부교수

치의학역사자료실 설치

우리학교는 2013년에 치의학역사자료실을 치의학관 2층에 설치하였다. 그간 임종성 동문(4기)를 비롯하여 많은 동문들이 기증하였던 치의학 사료를 치의학관 2층에 장소를 마련하여 전시하였다. 이 자료실은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뿐만 아니라 치의학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전시되며, 우리나라 치의학의 역사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료구강검진



본원 3학년 76명은 2013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7회에 걸쳐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은평의 마을에서 489명에 대한 무료구강검진 사업을 전개했다. 이번 무료구강검진 사업은 2011년 12월 22일에 본대학원과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간에 체결된 MOU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Lux Humanitas 정신을 계승하고 치전원생의 인성교육 및 재능기부를 위해 마련되었다.

전체교수 워크샵

2013학년도 하반기 워크샵이 2014년 2월 15일(토) 호텔 아카데미하우스 '대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대학원장, 보직교수 및 전임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어떤 유형의 학생을 뽑을 것인가?', '어떤 항목으로 평가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분임토의가 이루어져 인재선발과 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대문구 관내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2013년 9월 28일(토), 12월 28일(토)에 동대문구 보건소의 요청으로 동대문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치과병원과 더불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현황 소개 및 소식지, 안내자료를 배부하였고 치의학관 지하 2층 강의실, 지하실습실(임상전단계 실습실/진료B303, 기초실습실 B306, 임상전단계실습실/기공 B403), 신흥플라자를 견학하였다.

미국 UCLA 치과대학으로 우리 대학원 교수 및 학생 방문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국제화사업 및 교육특성화를 목적으로 자매대학인 미국 UCLA 치과대학에 2014년 1월에 방문하였다. 박준봉교수와 6명의 학생이 방문한 이 기간동안 학제 및 교육과정에 대한 특강 및 국제교류를 통한 재학생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었다. 자매교와의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하여 공동연구 및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일본 후쿠오카 치과대학으로 우리 대학원 교수 및 학생 방문

치의학전문대학원 국제화사업 및 교육특성화를 목적으로 자매대학인 일본 후쿠오카 치과대학에 2014년 2월에 방문하였다. 김규태 교수와 5명의 학생이 방문한 이 기간동안 각각의 임상교실 및 기초교실에서 진행한 특강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관내 병원도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후쿠오카 치과대학 학생들과의 만남등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주한 미국 618부대간의 MOU 체결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주한미군 618부대간의 학생 교류를 통한 선진 치의술기 습득 및 최신의 학문적 정보 및 자료확보를 위해 2014년 2월에 양 기관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생교류 및 학문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경희중학교 진로 체험 방문



2013년 11월에 경희중학교 학생들이 진로체험의 날 기념으로 본 대학원에 방문하였다. 치과대학과 더불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치의학전문대학원 현황 소개, 학제 및 교육과정을 소개하였고, 치의학관 실습실을 체험하는 등 학생들에게 향후 진로안내 및 대학교 홍보에 크게 기대하였다.

최기운교수 명예퇴임식



2014년 2월 24일(월)플라자호텔



영상치의학과

- 2013년 6월 22-27일 최용석 교수가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린 국제악안면방사선학회(IDMFR)에 참석하고 포스터 발표하였다.
- 2013년 10월 19일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교정과

- 2013년 9월 8일,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학 교실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 동문회가 주최하는 ‘제 4회 경교회 orthoforum, 치주교정 심포지엄’이 경희대학교 청운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 2013년 9월 28일,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학 교실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 동문회는 강동경희대병원 별관 지하 강당에서 Eustaquio Araujo 교수, 김기범 교수 및 경희대학교 교정학 교실 교수진을 연자로 학술 강연회를 가졌다.
- 2013년 10월 4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병원장이 취임식 및 개원 42주년 기념식이 있었으며, 신임 치과병원장에는 교정학 교실의 박영국 주임교수가 임명되었다. 42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김성훈 교수와 박기호 교수가 미원임상의학상을 수상하였다.
- 2013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박기호 교수가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열린 2013 JOS에 참석하였다.
- 2013년 10월 20일, Baylor College of Dentistry, UTDBH, NYU 교정과의 clinical professor로 재직중인 R. G. “Wick” Alexander의 강연이 경희대학교 청운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 2013년 10월 31일~11월 2일 박영국 주임교수를 비롯한 교정학교실원들은 제주도 서귀포시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대한치과교정학회 제 51차 정기총회 및 제 46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2013년 12월 8일, 강윤구 교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2013 고려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학술제에서 “Biodimensional technique : Clinical considerations”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2014년 2월 18일, 박영국 주임교수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학(원)장에 취임하였다.

소아치과

- 2013년 8월 20-22일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국제치과학 연구학회(IADR-APR)에 박재홍 교수가 참석하였다.
- 2013년 10월 11-13일 일본 장애인치과 학회에 김광철 교수, 박재홍 교수, 이수언 선생이 참석하였다.
- 2013년 10월 25-26일 경주 더 K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 소아치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남옥형, 한윤경 선생이 구연 발표하였다.
- 2013년 11월 16일 장애인치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2013년 11월 21-22일 소아치과학회 학술 집담회에 참석하였다.
- 2014년 1월 11일 경희대학교 소아치과 신년회가 개최되었다.

구강악안면외과

- 2013년 7월 30일 난치성 턱뼈 질환 센터 개소식을 했다.
- 2013년 9월 29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치과대학병원 류동목 병원장 취임식이 있었다.
- 2013년 10월 18-26일 류동목 교수와 홍성욱 선생이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ICOMS 에 참석하였다.
- 2013년 10월 18일 자유진 교육연구부장이 치과병원 진료부원장으로 임명되었다.
- 2013년 10월 29일 최병준 교수가 건설경제신문에 턱관절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 및 단계별 치료법에 대해 전했다.
- 2013년 10월 31~11월 2일 대한구강악안면성형학의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2013년 11월 2일 이백수 교수가 YTN 뉴스에 임플란트의 선택기준 및 술 후 주의사항과 관리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

- 2013년 11월 5일 권용대 교수가 SBS 생활경제방송에 턱뼈 과사증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
- 2013년 12월 7일 오주영 교수가 건설경제신문에 양악수술의 방법, 기간 및 수술 후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전했다.
- 2013년 12월 7일, 정보행정동에서 난치성턱뼈질환 개소 기념 심포지움이 있었다.
- 2014년 2월 6일 권용대 교수가 한국일보에 골다공증 치료제 후유증에 대해 전했다.
- 2014년 2월 28일 김영갑 교수가 퇴임하였다.

치주과

- 2013년 9월 1일 제 2회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주과학교실 하계학술대회가 박종기 대사에서 개최되었다.
- 2013년 9월 1일 강경리 교수가 UCLA 연수를 시작했다.
- 2013년 9월 3-4일 허익 교수가 일본 Nara Prefectural New Public Hall에서 열린 Asian Pacific Society of Periodontology에 참석하였다.
- 2013년 9월 11일 신승윤 교수가 2013년 대한치주과학회 3차 학술집담회에서 ‘Periodontal treatment in the future’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3년 9월 27일 MBC 불만제로 프로그램에 박준봉 교수가 출연하였다.
- 2013년 10월 17-19일 신승윤 교수가 Ireland Dublin에서 열린 European Association for Osseointegration에 참석하였다.
- 2013년 11월 23, 24일 양일간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 2014년 2월 19일, 2013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박사 김선희, 석사 김성근, 문복희, 박병규 선생이 학위를 취득하였다.
- 2014년 2월 28일 권영혁 교수가 퇴임하였다.

보철과

- 2013년 9월 6일 이성복 교수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The 2nd Quintessence International Grand Prix Dental Conference’에서 ‘Universal Design in dentistry with innovative materials and technology for the elderly-disabled patients’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3년 09월 27일에 이성복 교수가 강동경희대병원 치과병원장에 취임하였다.
- 2013년 10월 3일 안수진 교수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기학술대회(일산 킨텍스)에서 심미보철: 임상의가 알아야할 수복의 팁’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3년 10월 3-5일 우이형 교수와 권공록 교수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KDS 2013(한국국제치과기자재 전시회)에서 발표했다.
- 2013년 10월 6일 권공록, 김형섭 교수가 세종대 광개토대왕홀에서 열린 네오바이오텍 심포지움에서 발표했다.
- 2013. 10.23 안수진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2013년도 하반기 신진연구 과제에 선정되었다.
- 2013년 10월 26일 우이형 교수가 강남성모병원에서 열린 KAOMI에서 발표했다.
- 2013년 11월 23~24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대한치과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했다.
- 2014. 02.12 이성복 교수가 KBS1 ‘라디오 주치의 이충현입니다’ 프로그램에서 턱관절장애 주제로 방송하였다.

보존과

- 2013년 9월 8일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대한접착치의학회에서 김덕수 교수, 장지현 전임의가 강연하였다.
- 2013년 9월 12-14일 최기운 교수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 16차 유럽근관치료학회(ESE Biennial Congress)에 참석했다.
- 2013년 10월 2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근관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했다.
- 2013년 11월 23-24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치과보존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했으며 박

- 상혁 교수가 'Neurigenic inflammation of pulp and Tooth cryonics'를 주제로 강연했다.
- 2014년 2월 28일 최기운 교수가 퇴임하였다.
- 박상혁 교수팀이 미국 근관치료학회 주관 공동연구 과제에 선정되었다. (미국의 UCLA,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병원 등 총 4개의 다기관 공동연구)

구강내과

- 2013년 7월 13-14일 경기도 치과의사회의 토크콘서트 연수회에서 어규식 교수가 '턱관절장애의 치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2013년 8월 25일 연합뉴스에 전양현 교수의 턱관절 장애에 대한 인터뷰가 방송되었다.
- 2013년 9월 28일 서울시 치과의사회 보수교육에 전양현 교수의 '턱관절 치료의 Update'강연이 시행되었다.
- 2013년 10월 19일 한국치위생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홍정표 교수가 'Understandig of medical compromized patlents for dental hyglene care'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2014년 1월 11일, 전양현 교수 서울시 치과의사회 보수교육으로 '턱관절치료 실전 Manual'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2014년 1월 13일, 전양현 교수 'CBS 라디오 웰빙 다이어리'에 '늘어나는 턱관절 장애, 치료는'으로 출연하였다.
- 2014년 1월 29일 전양현 교수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흡연과 미각기능'으로 출연하였다.
- 2014년 2월 5일 전양현 교수 '조선일보 헬스뉴스'에 '입 벌리고 자는 습관, 잇몸질환 부른다'로 지면 기사가 실렸다.
- 2014년 2월 7일 전양현 교수 'SBS 생활경제'에 턱관절 장애 주제로 출연하였다.

구강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 학회발표 및 학술활동**
- 김정희교수: KADR 학술이사(중계연구부분) 위촉, 한국치의학 교육인증평가자 교육 이수

- 김정희교수: 2013. 10월 대한약리학회 추계학술 대회 (구두발표), 2013. 11월 국제 당뇨병 및 신진대사 학술대회 (구두발표), 및 2014. 1월 대한비만학회 (구두발표)

연구비

- 김정희교수: 'BK(두뇌한국) 21 플러스' 과학기술융복합분야 사업 개시

악안면조직재생학(생리학교실)

- 노대현 교수 "Transplantation of human umbilical cord blood or amniotic epithelial stem cells alleviates mechanical allodynia after spinal cord injury in rats" (Cell Transplant.) (IF=4.422)와 국제 SCI 논문 3편, SCI(E) 논문 2편 발표
- 노대현 교수 한국연구재단 지정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연합성과발표회 참석 및 연구결과 발표 (2013.12.6.)

악안면조직재생학(병리학교실)

- 논문발표 및 연구활동**
- 김은철 교수 Influence of 2 cryopreservation methods to induce CCL-13 from dental pulp cells (J Endod) 외 국제 SCI 4편 발표
- 김은철 교수 한국연구재단 지정 기초의과학연구센터 (MRC) 연합성과발표 (2013.12.6.)

악안면생체공학교실

- 교실 동정**
- 악안면생체공학교실의 외래교수인 안민호 박사(경희치과병원 대표원장)가 2013년 11월 18일 '경희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제 42차 정기총회'에서 동창회장에 선출되었다.

- 논문발표**
- pH-Responsive robust polymer micelles with

metal-ligand coordinated core cross-links (Chemical Communications: IF 6.378) 외 국제 SCI 20편을 발표하였다.

연구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치주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식물항체 개발' (이진용 교수) 및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 자지원사업 '미네랄화 기반 암 치료 및 실시간 예후 영상화용 나노융합소재 개발' 및 MRC "나노융합 생체소재 기반 치아와 치주조직 재생 연구" 등 총 13개의 연구 과제에서 총 12억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예방/사회치과학교실

- 교실 동정**
- 박용덕교수 : 경희대학교 교수의회 의학지회 감사 및 전

체 감사피선(2013. 2~2015. 1)
 • 신임 연구교수 ; 권하정 교수(2013.04- 2015.02)

대외활동(박용덕교수)

-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2013.06-2016.05)
- 대한예방치과학회지 편집위원장(2013.06-현재)

논문발표

박용덕 교수는 archives of oral biology에 Analyses of organic acids and inorganic anions and their relationship in human saliva before and after glucose intake 등 지난 2013년에 총 5편을 발표하였다.



밴드부 MOLARS



고향치전에서 1학년은 드디어 Won't go home without you로 첫 공연을 했습니다. 2, 3학년은 이날 새 곡을 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신입생 환영회를 준비하며 2, 3학년이 새로운 곡들을 연습했습니다. Hit that, 너에게 가는길, 사랑은 타이밍, wherever you will go를 공연했습니다. OT 후에 2박 3일로 MT를 다녀왔습니다. MT에서 다같이 스키/보드를 타는 등 레저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학동안 용인에 있는 김석곤 선배님의 병원을 방문해 옵저를 하였습니다.

다이버



다이버는 여름 겨울 방학시즌에, OB 선배님, 교수님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 기본 교육을 기본으로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MT를 다녀왔습니다. 학기 중에는 수영장 교육으로 잊기 쉬운 스쿠버 다이빙 장비 탈착 및 관리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올해 2014년에는 가까우면 제주도, 멀게는 필리핀의 맑은 바다에서 다이빙을 할 계획입니다. Die For Nothing? Or Dive For Something? 모토에 걸맞는 다이버 동아리가 되도록 2014년도 힘차게 달려 보겠습니다.

통기타동아리 애아라시



2월 14~16일 양평으로 뮤직캠ป์를 다녀왔습니다. 낮에는 기타연습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공연 준비를 하고 밤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많은 OB, YB선배님들도 오셔서 밤새 기타와 음악과 함께

즐거워 시간을 보냈습니다. 2월 20일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공연이 있었습니다. '누난 너무 예뻐'를 시작으로 '들었다났다', 'I'll be there' 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소화했는데,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Dental Orchestra



저희 Dental Orchestra는 2013년 9월 14일 치과대학 지하강당에서 세 번째 정기공연을 하고 2013년의 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014년에는 신입생을 환영하는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공연을 했고, 풍성한 공연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 연습을 정기연습을 진행 중입니다.

클래식기타동아리 덴탈 스트링스



2월에 있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서툰 기타 초보자들의 공연이지만, 감명 깊게 봐주신 덕분에 감사하게도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스케일링센터오픈식에 초청돼 오프닝으로 축하공연을 했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도 꾸준히 클래식 기타에 관심을 갖는 선배님의 병원을 방문해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는 유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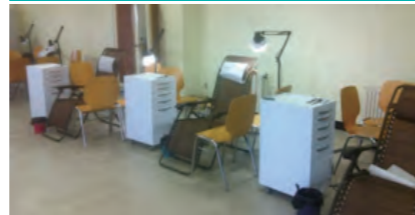
진료봉사동아리 WBM



겨울방학 동안 졸업하신 선배님들을 방문하고, 2월 6~9일 경기도 포천 영복 농협에 장기진료를 다녀왔습니다. 지도교수님인 최경규 교수님의 지도 아래 많은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오셔서 성공적인 진료를 하였습니다. WBM의 졸업생모

임인 MBM에서 회장인 17기 강승구 선배님, 총무 19기 유선규 선배님을 비롯해 15기 김석훈 선배님, 20기 김대섭 선배님 등 많은 선배님들이 지도 치과의사로 참여하셔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오는 영복 주민분들의 환대 속에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료봉사동아리 KODA



19기 최재명 선배와 37기 김성훈 선배의 기획·지원 하에 총6대의 이동식 진료 키트를 제작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High-speed/Low-speed engine 등과 같은 보존 치료에 필요한 장비들을 일반 박스에 모두 담아 사용하였던 것을 개선해 단순히 장비를 담는 수준을 넘어 실제 술자의 눈높이나 핸드피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42기 김성태 선배의 도안에 따라 제작되었고, 사람과 같은 수납 공간을 추가해 사전에 진료 도구나 재료 등을 보관할 수 있어 술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 43기(현재 4학년) 코다 회원들이 장학금을 모아 방사선필름 자동 현상기를 마련해 진료에 배치했습니다.

기독교진료학술봉사동아리 CDSA



2013년 10월 31일 학술발표회를 통해 OB연자한 분과 1,2,3,4학년 각 한 명씩 자신이 연구한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1월 22일에는 제39회 정기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일일진료 봉사지를 옥수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겼습니다. '토요무료치과진료'라는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으로 겨울장기진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사진동아리 DAPO

2013년 9월 다포지도교수님인 이성복교수님께서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장으로 취임하

셨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다포 정기세미나를 진행하여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30일 다포정기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농구부(UNIT)



2년 연속 전국제패의 위업을 달성하고도 쉬지 않고 훈련과 시합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11월 2일 홍대사대부고에서 OB-YB전 농구시합 후 회기에서 개강파티 겸 뒷풀이를 했습니다. 2014년 2월 총 3분의 선배치과 방문을 했습니다. 2014년 4월 2일에 OB-YB전 농구시합을 하고, 저녁에는 교수님 사은회 및 신입생환영회를 가졌습니다. 5월 3일 단국대학교 주최로 천안에서 경희대, 단국대, 서울대, 연세대가 전치제 중부예선을 가졌습니다.

테니스동아리 Y.D.T.C.



2월 10~14일까지 겨울훈련이 있었고, 15~16일에는 겨울오픈과 졸업생환송회가 있었습니다. 오픈에는 여러 선배님들이 오셔서 졸업하는 선배들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즐거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방에 계신 선배님을 찾아 뵙기도 했습니다. 1월 24일에는 창원에 계신 선배님을, 2월 21일에는 단양에 계신 선배님을 찾아뵙고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이번 신입생 세 명이겠죠! 체계이며 운동신경이며 술이며 나무랄 데 없는 1학년들과 와이드는 올해도 열심히 테니스에 매진하겠습니다!

진료봉사동아리 의료연구회



2013년 8월 30일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2014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상주 및 부산에 계신 선배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2월 22일에는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정기진료를 이어나갔습니다.

모퉁이들



2014년 2월 8일, 회기 민들레 영토에서 졸업생 환송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을 뵙고, 따뜻한 격려의 모습을 위해 모였는데, 편안함과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 들려주신 소감들은 주옥같이 마음에 와 닿았네요.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와, 진솔한 이야기는 학교 안에 갇혀 지내면서 마음의 여유를 잃을 때마다 되새겨질 것 같아요. 선배님들의 모습이 온기를 나눠주는 작은 태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료봉사동아리 MS



MS는 격주 일요일 오후 2시~5시 가산디지털단지 근처의 한중사랑교회에서 진료봉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1월 18~19일 이틀 간 서산청년회의소와 협약하여 충남 서산시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겨울장기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야구부 덴탈에이스



덴탈에이스는 2013년 10월 13일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OBYB전에서 야구부의 끈끈한 정을 확인했습니다. 11월말 교

내야구대회인 고향컵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자체 청백전과 훈련 그리고 크고 작은 모임들로 실력과 우정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중순에는 실내 야구연습장을 대관하여 팀레슨을 받으며 훈련을 하였습니다. 2월부터는 동대문베이스볼리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술부 흙(土)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한차례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작품 활동 및 친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3년 11월 25일~29일 경희대학교치의학대학원 건물 지하4층 신흥플라자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2014년 1월 23일에는 42기 졸업생 환송회를 하였습니다.

배구부 NET



배구부는 1월 42기 선배님들의 국시응원을 함께 하였습니다. '14년 2월에는 신입생을 만나는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신 최성철 지도교수님과 시즌 오픈 및 교수님 환영회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를 통하여 교수님, OB선배님, 재학생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공유하였습니다.

편집부

편집부는 어김없이 치우현우를 기획하고 학우 여러분들께 알찬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지런히 학교 내외의 행사를 뛰어다니며 취재를 하였습니다. 교수님, 선배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 편집부와의 교류도 이어나가고 있으며 학내 소통 창구로서의 편집부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희치전인의 친구 치우현우와 편집부 많이 사랑해주세요! 편집부 파이팅!!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Center for Pediatric Dentistry,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이하 UW)은 Washington주의 서북부 시애틀에 위치하고 있다.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로 역사적 건물과 세계적 석학들이 많은 학교이다. 시애틀은 미국내에서 범죄율이 매우 낮은 도시이며, homeless가 매우 적은 도시이다. 도시 대중 교통은 버스과 ferry를 이용해 생활한다. UW 학생과 faculty는 husky card라는 학생증, 직원증을 만들어 사용하며, 쿠퍼티당 저렴한 가격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UW의 레지던트 코스는 각 과별로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방문 학자나 개업의를 위하여 다양한 과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경희대학교 소아치과 교수로 발령을 받고 일정기간 근무하며 치아 외상에 관한 공부를 수행하다 2013년도에 더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첫 연구년에 대한 계획은 Loma Linda 치과대학의 Dr. Barkland 교수와 연락을 시도해 이야기 하게 되었다. Dr. Barkland는 Dr. Andreasen와 함께 치아 외상학회의 두 축이 되었던 분이 다. 그러나 그 교수님께서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University of Washington에 있는 Dr. Cohenca 밑에서 공부하기를 추천했다. 처음에 그곳이 어디인지 몰라 구글맵에서 찾아보는데 그 곳이 Seattle였다. 어릴 적 맥라이언을 몹시 좋아하던 시절에 Sleepless in seattle을 보고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나, 이렇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Dr. Cohenca는 미국근관치료학회 board member이자 Dental traumatology의 부편집장으로 많은 논문과 저서의 저자로 근관치료학과 외상학에 있어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는 교수이다. Dr. Cohenca의 권유로 Seattle에 있는 center for pediatric dentistry(이하 CPD)에 연구년의 자리를 잡았다. CPD는 UW 치과대학과 30분 거리의 Washington lake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치과대학보다는 Seattle children's hospital과 연계하여 진료를 시행했다. 나 또한 임상교수로 지난 교수 생활은 승진 규정에 맞춰 정신 없이 살다가 연구년 선택에 있어 앞으로 20년이 넘는 교수 생활에서 임상의 중요성을 두고 또한 많은 임상교수와 교류를 위하여 기초학보다는 임상교실로 갈 길을 잡았다. Seattle의 CPD는 소아치과 의사와 각과의 specialist가 공동의 노력을 하는 소아치과 병원으로 4층의 T자 모양의 건물을 가지며 26개의 치과 chair와 3개의 전신마취 방을 가진 최신 병원이었다. 각 chair는 소아치과 치료를 위하여 N2O-O2장비가 캐비닛 안에 비치되어 있었으며, 천장에는 TV시설과 chair side의 모니터를 통하여 X-ray관독과 설명을 시행하였다. 14명의 임상교수와 2명의 연구 교수가 주를 이루었으며, 많은 외래교수가 학생진료와 수련의 진료를 보조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의 연구년은 CPD에서의 기본 교육에서 시작되었다. HIPAA(Health Insurance Por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Asbestos Free education,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및 Bloodborne Pathogen Training을 통과해야 임상에 접근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강의식으로 진행하지만 이곳에서는 인터넷으로 시행한 후 각 course를 시험을 시행하여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 후 소아치과 임상에서의 다양한 진료에 관찰하게 되었고 여러 과가 같이 소아치과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게 되었다. 각 과별로 specialist가 인정을 받고, 그 외의 진료는 다른 specialist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소아치과 센터가 운영되었다. 물론 국내의 의료 기술이 우수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미국에서의 진료는 좀더 세분화되고 원칙적인 진료를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미국의사들이 환자를 적게 본다고 하지만 이곳 시애틀의 CPD는 마치 한국에서 나의

진료 pattern과 유사하게 많은 환자들을 보고 있었다. 단지 진정 치료에 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 진정치료는 수면치료라 말할 정도로 심도 있는 치료를 시행했으나 이곳에서 진정치료는 잘하는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도의 얇은 치료를 시행했으며 당일 전신마취를 많이 시행했다. 전신마취를 위한 마취과의사, 간호사 및 coordinator가 상주하여 하루에 5-7건의 전신마취를 수행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보호자의 전신마취에 관한 고정관념의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새삼스럽게 생각이 났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소아치과의 방법을 과연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지 부러울 따름이었다.

CPD내에서의 수련교육은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교수들의 수련 교육에 참여율과 방식은 좀더 적극적이었고 매일 아침 7: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각 교수들의 특강을 4일간, 나머지 하루는 수련의들의 증례 발표로 주5일의 tight한 일정의 교육을 매일 시행했다. 미국에 도착한 시기가 학기 중인 관계로 중간부터 세미나를 참관하게 되었고 각 교수들의 열광을 청취하게 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10명이 안되는 수련의들과 매일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의 모습에 그동안 한국에서의 내 수련의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곳 CPD는 실험을 위한 실험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임상연구를 위한 회의실과 연구교수실이 있다. 임상연구를 위한 기본적 protocol의 수립 및 연구 계획서 작입 그리고 펀드를 따는 일을 맡고 있다. 내가 방문하던 시점에 4개의 임상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각 진료실에는 임상 연구에 관한 protocol이 비치되어 있었다. 임상 연구는 대부분 새로운 재료의 임상적인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로 임상가가 재료를 접하고 사용할 때 가지게 되는 중요한 자료들이 된다고 생각했다. 나 또한 임상가이지만 지난 기간 동안 교수로 써 논문 작성을 위하여 동물실험 및 생체공학 쪽으로 공부를 주로 하던 터이라 그 동안 생각지 않았던 임상가의 향후 공부 방향에 관하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Dr. Cohenca와의 미국 생활은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는 항상 활발하며 많은 것을 가르쳐주려 했고 지난 기간 나의 공부에 관해 관심을 갖고 조언하려 했다. 물론 그가 공부해온 방향과 다소 거리가 있지만 개방된 생각으로 지난 기간 내 연구들을 같이 토론하게 되었다. 특히 한 학기 동안 시행한 그의 세미나에 참가해 강의를 듣는 것은 학회 특강을 매주 듣는 것 같았다. 세미나 후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며 나누는 대화와 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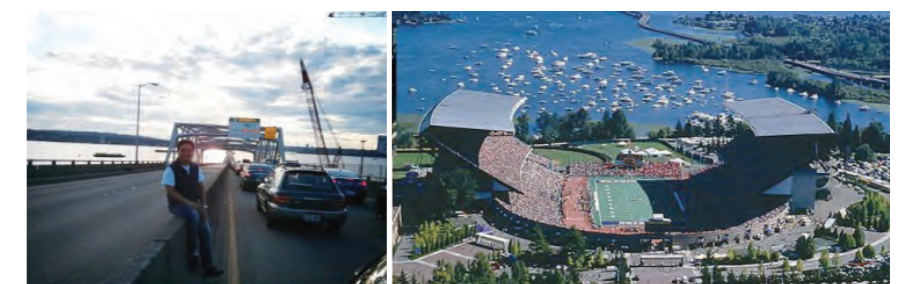


project(mouth guard project)라 하여 그가 좋아하는 football 선수들의 mouth guard 제작에 참여해 한 동안 덩치 큰 football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생활하는 즐거움이었을까. 또한 내가 머문 시기에 시애틀은 미식 축구에서 지역 우승뿐만 아니라 슈퍼볼을 우승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이 도시는 운동과 거리가 멀었으나 지난 한해 내내 Seahawks이 열풍을 주말마다 이어 갔었다(Go! Seahawks!).

가족과의 미국 생활은 다들 아는 바와 같이 너무 즐겁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다. 시애틀의 밤은 여름에 10시 반에 해가 진다.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서 저녁 먹으면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겨울은 4시면 해가 저서 초저녁부터 아이들과 머리를 싸매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숙제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가족이라는 소중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나의 취미 생활이자 즐거움인 요리... 한때 미국에서 식당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나의 재발견, 가족들이 나의 요리를 먹으며 행복해 하는 것을 자주 느끼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다.

해외 탐방에 관한 글을 마무리하며, 우리 치전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잠시 고민해 보았다. 우리 경희대학교 치전원의 우수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 또한 이곳에서의 모든 과정과 성과에 만족하고 지낸다. 그러나 글로벌 한 시대에 좁은 곳에 있기보다는 넓은 다른 곳에서의 배움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또한 권해주고 싶다. 또한 내가 다녀온 시애틀의 소아치과센터는 향후 나의 소아치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지 않나 생각한다.

글·사진 소아치과학교실 최성철



매일 출근하던 520 bridge와 Husky stadium.

이상래 학장님 인터뷰



학장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정년 후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요.

요즘도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우선 정년 기념으로 뜻을 함께 교수들과 출간했던 초판 도해구강악안면방사선학 책을 전면 개정작업 하고 있습니다. 치과대학 학생들과 임상들이 더 알기 쉽고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여행도 틈틈히 하고 치과계는 물론 여러 분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학장 재임기간 중 유난히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일이 있으신가요.

대학에서 보낸 모든 시간들이 다 기억에 남지요. 그 중에 돌이켜 보면 학장 보임 중이 어렵고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웠기에 보람이 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하고 긴박했던 사안은 치과대학관 신축 건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의 치과대학관 신축에 대한 요구가 컸지만, 대학 본부측에서는 난색을 표했어요. 우선 치과대학관을 신축할 마땅한 부지가 없었고, 치과대학관을 신축하게 되면 다른 단과대학의 요구가 도미노 식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였지요. 우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신축 부지를 찾는 것이 선결문제였어요. 보직교수들과 직접 캠퍼스 곳곳을 답사하며 치과대학 부지를 찾았고 그렇게 찾은 자리가 지금 치과대학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부지는 면적이 넓지 않고, 의약관 건물의 유일한 숨통이 되는 공간이라 공식적으로는 승인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선 부족한 지상면적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하층을 포함한 치과대학관 조감도를 작성하고, 치과대학 동창회에서 발전기금을 모아 건축기금의 일부를 충당하는 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조감도에 대한 설명과, 동창회 발전기금 출연을 총장님과 본부 보직 교수들에게 보고해서 우여곡절 끝에 신축에 대한 총장

님의 승인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치과대학관 신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를 비롯한 동창회 임원단, 지부 보수 교육 담당 교수들이 팀을 이뤄서 지부를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치과대학관 신축 기금 모집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3억여원이라는 기금을 마련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 그 당시 함께 뛰어준 김성욱 동창회장, 정재규 고문, 김동기 명예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또 한가지 기억되는 것은 치의학전문대학원로의 학제 개편이예요. 그간 우리 치과대학이 경희대학교 간판대학으로서 가지고 있던 위상 유지 문제 등 우려 사항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제 개편이 대학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었고, 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한 정부와 대학 당국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우리 대학도 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기초요원 양성은 확실히 추진하고 전문대학원로의 전환시기도 각 대학에 일임해주었으나, 재정문제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학제 개편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나 교수 충원 문제 등을 각 소속 대학에서 해결해야 했었지요. 이 때문에 우리 치과대학에서는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학제 개편의 반대안을 대학 본부에 보고 했었지만 무산되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학장님께서, 옹한 스승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별명을 갖고 계신데 또 그와는 상반되는 인자한 스승의 모습을 갖고 계신 것으로도 제자들 사이에 유명합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학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질문은 부끄럽고도 어려운 것 같네요. 내가 대학에 처음 부임했을 때, 원칙을 지키는 교수가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되었지만, 당시 국립서울대학에 비해 교육 여건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우선 내 담당과목만큼은 어느 대학보다 앞서서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다짐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그 별명을 얻은 것 같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깊은 배려가 기본이 될 때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강의실 밖에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은 교수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교수들도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올바른 주장은 규범 내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장님께서 후배 치과의사들이 이것만은 꼭 해주었으면 하는 것

이 있으신가요

요즘 개원가가 전체적으로 침체와 혼돈에 빠져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으니 개원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죠.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에, 일부 치과의사가 손쉬운 방법과 진료수가 인하 등 편법으로 치과계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많은 치과 의사들이 너도나도 위기감에 쫓겨 진료수가 덩핑이라는 방법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은 부메랑이 되어 본인은 물론 치과계 모두를 곤경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에 공감해야 합니다. 진료수가의 덩핑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진료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팽배해지고, 모든 진료가 임플란트로 귀결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일부 치과에서 치주치료나 근관치료 같은 보존요법으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치과의사 모임에 가면 요즘 치과 치료는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 밖에 없다는 지탄을 자주 들어요. 치과의료의 본질을 망각하고 진료 영역을 스스로 한정 짓는 것은 국민건강이나 치과계를 위해 깊이 자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대학 출신만이라도 치과의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학장님의 건강 유지 비결은 무엇인가요.

아프고 싶어도 아플 시간이 없다고 하시던 옛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대학에 있었을 때는 늘 바쁘게 살아서인지 건강을 챙기지 못 하다 요즘 건강을 생각하게 되요. 내자와 함께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는데 다행히 집이 인왕산 자락에 있어 산에 자주 갑니다. 한두 시간 정도의 산책이지만 산자락이 넉넉하고 푸근해 그 동안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전에는 하지 못 했던 대화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국내 여행도 자주 합니다. 국내에도 경관이 수려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게 지내다 보니 저녁 시간은 지금도 많이 바쁜 편이라, 즐겁게 지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활력소가 되는 것 같네요.

여행 다녀오신 곳 중 추천하고 싶은 곳, 혹은 후학들이 이것만은 꼭 해보길 추천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여행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예요. 가는 곳마다 즐기고 기억에 남기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Cape Town과 Cape of Good Hope(희망봉)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Cape Town은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세 도시 중 한 군데로 유명하다지요. 또 감당 못 할 정도로 바람이 세계 부는 언덕과 끝없는 해안을 걸으면서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 빛나는 아름다운 바다색에 감탄했던 Cape of Good Hope, 그리고

또 한 곳을 꼽자면 3월에도 크리스마스 카드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환상적인 겨울 풍경을 보여준 Tatry Zachodnie(타트라 산맥)을 지나던 길도 꼭 추천해주고 싶네요.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여행이라고 하는데, 젊을 때는 꼭 가고 싶던 곳 중 멀리 떨어져있는 곳을, 나이 들어서는 비교적 가까운 나라나 한 도시를 선택하여 여유 있는 여행을 즐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치과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후학들이 가져야 할 자세 또는 마음가짐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나 치과계는 그 어느 때보다 원칙과 규범이 지켜지지 않고, 안일함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치과계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치과의사 스스로가 만든 것도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치과계를 걱정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치과의사로서의 윤리 부족이 문제점이라고 타타고 있고, 대학 교육을 질책하고 윤리학 강좌의 개설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과대학 본과 과정이나 전문대학원 과정에서 학생들은 강의와 임상실습을 통해서, 또는 서클 활동을 통해 여러 교수로부터 자연스럽게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윤리관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학습효과는 학생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치과의사들은 선배들보다 영특하며 자기 주관이나 가치관이 확실하고 자기 성취욕도 대단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높은 직업윤리관이 전제로 될 때 실현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발전이나 바람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속한 조직 전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때에 자기 발전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해요.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하며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로서의 높은 자신감과 자긍심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치의학은 물론 기초의학도 섭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인문학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아 존경받고 능력있는 치과의사가 될 수 있으며 치과계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안면조직재생학 -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 (Department of Oral Maxillofacial Pathology)



전공주임교수 김은철 교수

전체 구성
조영아 조교수
MRC 학술연구교수(송미연, 김형준)
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3명

1. 교실연혁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은 1972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의 독립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현재 은퇴하신 조한국 교수님, 조재오 교수님의 헌신에 힘입어 기초치의학의 태동을 이끌고 타 치과대학 구강병리학 교실의 산실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조한국 교수님께서 1989년 구강생물학연구소의 초대 연구소장으로 취임하신 이래, 우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구강암 및 치성중앙, 그리고 약물과 재료에 의한 구강조직의 변화양상 등에 대한 연구의 주축이 되어왔으며, 2011년 3월 연구의 융복합을 꾀하고자 구강생리학교실과 함께 악안면조직재생학교실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도 학문적 기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대학에 설립된 치아와 치주조직재생연구센터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의과학연구소로 선정됨과 더불어 교실 내부적으로도 더 큰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2. 구강병리학

구강병리학은 각종 구강악안면영역 질환의 현미경적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만이 아닌, 질환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즉 정확한 진단명을 확립하고 그에 적합한 치료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병의 원인과 발병 기전 및 구강 조직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현미경적 변화 양상, 그리고 병변의 치유 및 재생 등에 대해 탐구하는 기초치의학의 한 분야로서, 학문적 성취감과 더불어, 병리학적 진단을 통해 의사로서의 보람됨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2014년 5월 현재, 두 명의 교수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일반병리학 및 구강병리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두정부 영역 전반에 걸친 질환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치과사의 육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3. 치아와 치주조직재생연구센터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아와 치주조직재생연구센터는 지난 2012년 9월 기초의과학 부문의 거점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생명공학에 활용 가능한 지식과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의과학연구소 (Medical Science & Engineering Research Center)로서 선정되었습니다.

구강악안면병리학 교실의 김은철 교수님께서 본 센터의 센터장 및 1총괄 1세부를 맡고 계시며, 이는 치아와 치주조직의



궁극적인 재생을 위한 종합 연구 중에서도, 치아 및 치주질환의 발병 기전을 규명하고 선도 물질의 개발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본 센터는 7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치의학의 핵심 연구 분야인 치아와 치주조직의 손상 및 재생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닌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본 센터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기초 치의과학자의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RC 정기세미나는 20여회에 걸쳐 매월 개최되어 왔으며 다양한 연구 분야의 역량 높은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는 ‘간상질환에 대한 한약재의 효능평가’ (김상찬 교수, 방제과학 글로벌 연구센터장), ‘약물치료의 최적화를 위한 DDS 체계의 이론과 설계’ (김대덕 교수, 내인성리간드 신호전달조절 항암제 연구센터장), ‘Cancer genetics in pathology -Broader and deeper’ (이석형 교수, 암진화 연구센터장), ‘IL-10 induced by sulfuretin regulates development of pancreatitis’ (박성주 교수, BK21 Plus 사업단장) 등의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특강과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친 연구력증진을 위한 임상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 모임이 개최되었고, 이는 치아와 치주조직재생연구센터의 홈페이지(<http://rctpr.khu.ac.kr>) 및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치과병원 게시판에 매회 공지되고 있으며 우리 대학의 연구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상중개연구 모임은 임상과 기초 분야의 연구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구에 필요한 아이디어 및 실용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장이 되고자 합니다.



임상중개연구 모임, MRC 세미나실

4. 2013년 2학기의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 학술활동

- 2013. 9. 26~27 한국생체재료학회 제21차 학술대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스터 발표
- 2013. 10. 9~11 The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서울, 코엑스) 포스터 발표
- 2013. 11. 28~29 제12회 대한기초치의학 학술대회(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포스터 발표

글·사진 악안면조직재생학교실 조영아

통기타 동아리 애야라시



1970~80년대에는 송창식, 윤형주, 양희은과 같은 통기타 가수들이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캠퍼스 여러 곳에서 기타 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경희대학교 치진원에는 애야라시라는 통기타 동아리가 있는데 80년대 중반에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던 학생 몇 명이 통기타에 관심을 가지면서 만들어 졌고 통기타를 좋아하여 라디오 방송에 고정 출연까지 하셨던 보철과 최대균교수가 지도교수를 맡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서태지를 필두로 한 전자음악이 대학가를 휩쓸면서 한 세대를 풍미했던 통기타의 인기는 점점 식어가 몇몇 마니아들에게로 국한되게 되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세시봉 콘서트를 비롯한 그 때 그 시절의 통기타 음악에 대한 재조명이 있었고, 통기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애야라시도 한 때 몇 년 동안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아서 존재의 기로에 서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 학년에 열 명씩이나 있는 큰 동아리로 다시 자리 잡게 되었다. 작년부터는 교정

과 박기호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고 있다.

통기타는 기타의 한 종류로, 금속 줄을 사용하는 기타를 말한다. 주로 6줄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별도의 전기장치의 도움 없이 울림통에 의해서 소리를 내게 된다. 몸통은 주로 마호가니, 자단으로 만들며, 지판은 주로 자단, 단풍나무를 사용한다. 간혹 합판으로 만들기도 하나,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이 아름답지 못하다.

클래식기타와 통기타는 외형적으로 흡사하여 언뜻 보면 구분하기 쉽지 않으나, 사용하는 줄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클래식 기타는 나일론 줄을 사용하고 통기타는 금속 줄을 사용한다.

그래서 줄을 튕길 때 통기타는 날카롭고 강한 소리가 나며, 클래식기타는 부드럽고 은은한 소리가 난다. 그 밖에 기본적인 모양(바디나 넥, 그리고 헤드부분)도 약간 다른데, 최근엔 두 기타의 특징적인 모양이 합쳐진 듯한 기타가 많이 나와서 약간은 헷갈리기도 한다.

통기타는 쇠줄을 장착할 수 있는 기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쇠줄의 장력에 버틸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다. 프렛의 수

는 일반적인 드레드넛 바디의 경우 20프렛 정도 되며, 지판의 폭이 44mm정도 된다.

클래식기타는 원래 클래식음악용으로 '거트' 기타(동물의 내장으로 줄을 만들었다고 해서)라고도 불리는데, 일반적인 크기의 클래식기타는 지판의 폭이 50mm가 넘고 18프렛정도 된다.

지판이 폭이 통기타보다 넓고 넥이 두껍기 때문에 초반에 줄을 잡기가 쉽지 않다. 물론 나일론 줄이라서 손가락은 덜 아프지만, 손이 작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기타는 현존하는 악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기타는 리라(Lyre)의 일종이었던 고대 그리스의 악기, 시타라(Cithara)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악기는 목이 없었기 때문에 기타의 조상으로 볼 수는 없고 기타의 직접적인 조상은 8세기경 사라센 제국의 스페인 지배 당시에 무어인들이 들여온 '퀴타라(Quitara, 사현기타)'라는 악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며 이것이 오늘날 기타(Guitar)라고 이름하게 된 것이다.

기타는 고대로부터 바로크 시대까지는 악기의 여왕 노릇을 했다. 그러나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이 발명된 후에는 음량이 작다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주요 악기의 대열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기타를 완성시킨 사람은 안토니오 토레스(1817~1892)로써 기타의 크기와 형태, 줄길이의 기준

을 확립시켰다.

즉, 현대 기타의 줄길이인 65cm 전후로 음역은 E음에서 3옥타브 이상을 낼 수 있는 악기를 만든 것이다. 1833년 C. F. Martin에 의해 미국에서 최초의 금속줄을 사용한 통기타가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현대 통기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통기타는 휴대성이 좋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건 둘째치고라도 악기 자체가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소리가 풍성해 다른 악기 없이 단독으로 연주가 가능하고, 주법이 다양한 곡을 여러 가지 느낌으로 연주할 수 있다. 연주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통기타의 큰 장점이다. 또한 기타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 클래식한 악기에 비해 가격적인 부담이 적어 쉽게 다가갈 수 있다.

1970, 80년대 한국 대학가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통기타의 낭만을 금세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김광석, 송창식, 양희은 등 지금 들어도 아름다운 그 많은 주옥같은 곡들이 전부 통기타의 리듬에서 탄생했다.

최근에는 슈퍼스타K, K팝스타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통기타를 들고 나와 연주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통기타는 연주자의 매력을 배가시켜 주는 멋진 악기인 것 같다.

글·사진 최대균, 박기호



2013학년도 발전기금 입금 (2014. 02. 28 기준)

1억 원 이상	안영자 이창진
7천만 원 이상	곽약훈 (주)신흥
5천만 원 이상	이재광 치과대학동문회(지순준 외), (주)비스코덴탈아시아
3천만 원 이상	김학찬 장지우 전요한 치과대학대전지역동문회, (주)지-씨코리아
2천만 원 이상	고광수 고철수 권영혁 김성기 김용래 김은철 문정기 박준봉 오구환 굿월치과병원
1천만 원 이상	공희정 김광휘 김규남 김성욱 김승윤 김여갑 김영훈 김용준 나성식 류동목 박양제 박영국 박주연 박태웅 백두흠 변옥 서광원 송요선 신응범 신한식 오우식 이광섭 이규원 이기수 이두희 이상혁 이상복 이운 이정우 이한우 장상건 장지현 정극모 정성민 조영욱 최대균 최영철 한만형 한정희 (주)덴티움, 경희치과병원, 오스템임플란트(주), 오우대학, 참조은치과병원, 치과대학1회, 치과대학2회, 치과대학3회, 치과대학5회, 치과대학6회, 치과대학9회, 치과대학12회, 치과대학13회, 치과대학15회, 치과대학19회, 치과대학22회, 치과대학수원지역
8백만 원 이상	김광철 김세영 김인화 박창건 유성희 이진용 정규림 최기운
5백만 원 이상	고광준 권국록 권일근 김기태 김려수 김상일 김수철 김영진 김중환 김판식 김필수 김향경 김형찬 박기범 박능석 박도양 박상혁 박승훈 박영철 박용덕 박재홍 박태웅 박희경 백동준 신영 신제원 양승춘 우이형 윤옥병 이건영 이건주 이근록 이명성 이상래 이상철 이상호 이현우 임호남 장건택 정용식 정재규 조재오 조준영 조해성 지찬동 최규규 최근락 최기운 최성백 최용석 최유진 최인 최호근 허성윤 허익 홍정표 황의환 황재상 (주)악어미디어, 치과대학16회
3백만 원 이상	강기현 강승훈 고봉진 구한미 권균원 권순용 권용대 권태훈 권호진 김덕 김동호 김명환 김보혜 김석훈 김선규 김성웅 김성환 김소현 김옥진 김우찬 김윤홍 김진오 김진철 김형남 김형섭 김형진 김효종 김훈희 남중현 마경화 박갑용 박남수 박동진 박미애 박상규 박상규 박상진 박성동 박수배 박희찬 백영완 부용철 석낙도 손세일 손원영 송창준 신민철 신민호 신완용 신익종 안민호 안희진 양영환 어규식 염상국 오범수 오병성 오성산 오승훈 오화탁 우정석 우택호 우형식 유석규 유신중 유영선 유용균 유충현 유희열 윤덕상 윤인중 이규원 이건욱 이광희 이근호 이동식 이만섭 이백수 이상태 이영준 이용호 이재천 이종태 이진표 이정재 임성빈 임성수 임순빈 임인학 장봉렬 장성진 장우익 장희웅 전양현 정동진 정병선 정순준 정연식 정운봉 정종혁 정창권 정철민 정충모 정형주 제한봉 조남성 조민규 조세중 조인교 조정근 조태희 조한국 조호구 주성숙 지유진 천강정 최병환 최부병 최재영 최정규 최현수 최호영 한승완 한용환 한훈 홍성태 홍영안 김정수치과의원, 이치과의원, 최신치과, (주)비스코덴탈아시아, 굿월치과병원, 오스템임플란트(주), 굿월치과병원하단, (주)신흥, 파나소니코리아주식회사
2백만 원 이상	권기열 김기문 김도완 김동기 김명진 감방수 김성진 김옥현 김은 김원겸 김인수 김재승 김정우 김정희 김종규 김지태 김춘진 김홍모 나금균 류준균 모규업 문재룡 문항진 박노희 박선영 박성근 박성원 박수진 박재현 백종은 손윤수 신동진 신현택 오인종 유경민 유재홍 윤석우 이규찬 이미경 이상복 이상훈 이수인 이은준 이정민 이종규 이준열 이창진 이필제 이해승 인영미 임태수 장수일 정주성 조민우 조송제 하정상 허정선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치과대학1기동문,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학교실 전공의 일동
1백만 원 이상	강정백 강한중 고진환 고천석 곽춘길 구국본 구본룡 구자경 구자룡 구재우 권수갑 기태석 길종선 김경용 김귀원 김동규 김문기 김미경 김봉현 김상석 김선욱 김선호 김성길 김성철 김세일 김수강 김수진 김영일 김용구 김원겸 김재구 김재오 김재일 김재철 김정욱 김정학 김중호 김중중 김진호 김철중 김태형 김택청 김해근 김현호 김혜경 김홍기 나중일 나태돈 남병우 남재형 노영억 류경희 류훈 문민연 문수인 문용환 문은영 민효기 박내길 박동원 박두중 박병걸 박병욱 박봉규 박상규 박상기 박상현 박상훈 박석범 박순건 박순정 박영수 박영주 박은기 박일해 박재석 박정용 박창건 박철제 박철성 박현 박현석 배영주 백상규 백영걸 변태진 사영철 서경숙 서남영 서윤원 성락진 송국현 송민재 송은면 송재만 송근배 신동건 신동구 신혜련 안광식 안근국 안병규 안병두 안정원 안재희 안현준 어수철 엄인석 오세웅 오세윤 오정진 오정환 오창근 오충영 오현미 원미영 유선열 유성희 유인희 유주현 윤경도 윤동호 윤두근 윤민의 윤창구 이근중 이공훈 이광재 이교용 이동규 이병국 이병도 이병태 이상은 이상호 이선희 이상철 이세준 이세춘 이세훈 이영택 이영석 이영식 이영식 이원규 이원석 이원화 이인석 이재학 이재훈 이재열 이정현 이종인 이천복 이충복 이태수 이태호 이화연 이흥기 이희정 임기효 임길웅 임상욱 임중성 임천택 장영민 장원준 장정태 장철민 장현주 장훈 전석열 전장환 전중혁 정관희 정대현 정선모 정용복 정인교 정철 정현근 정희일 조동성 조병도 조성국 조성열 조성진 조의현 조익주 조정현 조진호 지용기 지정호 지준순 차덕선 차애경 채영원 천무철 최명애 최상돈 최승규 최승현 최연석 최영범 최원침 최원재 최인식 최중우 최중실 최천영 하대주 한기림 한문식 한복석 한정희 한중수 한창규 한휘철 함동선 허귀남 현원석 홍선희 홍진표 홍해룡 황용구 경희치과의원, 구미공단예치과병원, 뉴욕BNS치과의원, 드림빌딩(서남영), 서산예치과, 세영치과의원, 송도드림치과의원, 웰나드치과의원, 이원준치과의원, 함께하는치과, 굿월치과의원 압구정, 사랑의치과의원, (주)악어미디어, 굿월치과의원 발안치과
1백만 원 미만	강남현 강대인 강승규 강주성 강철규 강혜령 강혜성 고건호 고영훈 고일혁 고창배 고현 공선식 공순현 공준하 곽용훈 권규현 권순민 권정은 금구석 금미연 김경선 김광식 김교철 김남준 김남중 김대기 김명섭 김미경 김민성 김배경 김보균 김보라 김보선 김상균 김상우 김석용 김성원 김성일 김승일 김승일 김시석 김시원 김영기 김영득 김영란 김영택 김윤희 김일환 김장욱 김재수 김정목 김정희 김중현 김창용 김철순 김태연 김학렬 김현경 김혜정 김호진 김홍광 나영민 노대현 노대현 노은희 류창수 류호경 모덕진 문영훈 문희현 민관순 박건호 박경아 박경일 박금출 박기현 박성규 박성규 박수정 박승 박용호 박원규 박재춘 박준봉 박준수 박지혜 박창훈 박춘배 반태환 배기창 배일환 배한익 배기현 백종욱 백진 백효찬 변현홍 서경성 서광원 서재승 서찬호 소웅섭 손미연 송성국 송창준 송현우 신강성 신동렬 신용문 신재창 양경돈 양광모 여병영 오나희 오승호 오승환 오유리 오정란 오현주 우승철 원현두 유용재 유지연 유지훈 유진석 유하균 유희승 윤성수 윤여진 윤용섭 윤인택 이대승 이동현 이석원 이성만 이수미 이수영 이수욱 이승규 이시원 이연수 이영희 이원철 이윤정 이은권 이은만 이을재 이을재 이인석 이정교 이정행 이정호 이지민 이지혜 이창규 이채숙 이태희 이한주 이현우 이현경 이현식 이혜영 임경석 임병진 장영명 장영배 장예진 장형준 전성근 전영신 전찬덕 정극모 정남희 정민수 정성민 정성진 정연진 정연진 정윤주 정의산 정준호 정지향 조규석 조성국 조영주 조운숙 조익주 최대영 최동훈 최문철 최병준 최성연 최승모 최승현 최창규 최현용 최희철 하지용 하지양 한동인 한무현 한수희 한혜숙 홍동희 홍해룡 황동현 황윤태 황지영 모마치과, 성모치과, 연수준치과의원, 프랜즈치과의원, 윤석우치과의원

동문회 소식 및 경조사

- 2013년 회무보고** -----
- 2012년 11월 22일 김경선(8) 1000만원 동창회 기금 출연
 - 2012년 12월 1일 CDSA 창립 40주년 행사(프리마 호텔) 나금균 회장 참석
 - 2013년 1월 9일 롯데호텔 총동문회 신년교례회 나금균 회장, 안민호 부회장, 박능석 총무이사, 조선경 재무이사 참석. 7기 이상호 동문 공로상 수상.
 - 2013년 1월 15일 이사금발간. 김홍모 공보이사(15), 권태훈(24), 이영훈(24), 이한주(24) 편집위원.
 - 2013년 2월 16일 김여갑 교수 정년 퇴임연. 나금균 회장, 조선경 재무이사 참석.
 - 2013년 2월 20일 신입 학생회 대표 간담회(명성관). 나금균 회장, 안민호 부회장, 박능석 총무이사, 조선경 재무이사 참석.
 - 2013년 2월 21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충주 썬스타인 호텔). 나금균 회장, 박능석 총무이사, 김봉현 총무간사 참석.
 - 2013년 2월 23일 권영혁 교수 정년퇴임연. 나금균 회장 참석.
 - 2013년 3월 25일 이사회(동보성). 동문 골프대회 개최의 건(6월 9일 진양밸리cc) 오우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교류의 건(집행부에 일임)
 - 2013년 6월 9일 동문골프대회 (진양밸리 cc) 1기부터 38기까지 30팀 참가. 선수권 우승 이성만(16) 준우승 이진중(7) 3위 손세일(18), 신페리오 우승 김진호(16) 준우승 조종만(13) 3위 최호근(14), 단체 우승 16기 준우승7기 3위 22기.
 - 2013년 7월 7일 전국치과대학 동창회 골프대회 (군산cc) 단체전 준우승(최종우,이성만,이용현,김소현) 메달 이성만. 임원조 우승 권태훈 메달 손세일.
 - 2013년 9월 11일 이사회(동보성) 동문회 연락의 건(직계 상의 경우 전 후 5기까지 연락, 결혼의 경우는 회원 본인이 연락, 모교 교수의 직계 상의 경우 전 회원에 연락) 정기총회 일정(11월 18일 동보성)
 - 2013년 9월 13일 고향지친(치과대학병원 당당) 나금균 회장, 박능석 총무이사 참석
 - 2013년 10월 2일 4학년 대표 간담회(샹그릴라) 나금균 회장, 안민호 부회장, 박능석 총무이사, 조선경 재무이사, 총대표, 졸업준비위원장 참석. 동문회 평생회비를 졸업할 때 납부를 부탁.

- 2013년 10월 14일 이사금 편집위원회(해담) 박능석 총무이사, 김홍모 공보이사, 이한주, 이영훈 참석
- 동문회 경조사** -----
- 경사**
- 2012년 12월 2일 신용범(2) 딸 결혼, 12월 8일 오성산(9) 아들 결혼
 - 2013년 4월6일 박영국(9) 교수 자녀 결혼, 4월 14일 장상수(3) 장녀 결혼, 4월 20일 나성식(3) 자녀 결혼, 6월 15일 장수일(2) 아들 결혼, 6월 22일 이영희(10) 딸 결혼, 8월 24일 김동기(4) 아들 결혼, 9월 28일 한만형(6) 차남 결혼
- 조사**
- 2012년 12월 11일 정철민(7) 장모상, 12월 26일 한동인(17) 부친상, 12월 28일 정창균(10) 부친상
 - 2013년 1월 12일 이충복(3) 별세, 1월 16일 강현숙(17) 부친상, 1월 20일 문윤식(5) 부친상, 1월 25일 손신영(15) 모친상, 1월 27일 오대환(6) 부친상, 2월 17일 안기동(16) 부친상, 3월 7일 이상철 전 학장님 별세, 3월30일 박영상(18) 부친상, 4월12일 최용석(22)교수 모친상, 5월13일 최호영(13)부회장 모친상, 5월 28일 조영필 전 학장님 별세, 6월17일 신기식(1) 별세, 8월11일 정병선(15) 부친상, 8월15일 홍정표(8) 교수 모친상, 8월 16일 이상호(7) 장모상, 9월2일 강지현(13) 부친상, 9월2일 김선호(14) 자녀상, 9월 12일 조은수(12)부회장 부친상, 9월 20일 노은희(16) 모친상, 9월 23일 홍정표(8)교수 부친상, 9월 30일 김성욱(6)고문 모친상
- 동문회 소식** -----
- 2013년 2월 16일 1회 김여갑 교수 정년퇴임
 - 2013년 2월 23일 1회 권영혁 교수 정년퇴임
 - 2013년 3월 19일 15회 이병도 동문 원광치대 학장취임.
 - 2013년 4월 13일 18회 전양현 교수 측두하악장애학회장 취임
 - 2013년 4월 27일 1회 김여갑 명예교수 치협 협회대상
 - 2013년 9월 박영국(9) 교수 치과 병원장 취임
 - 2013년 9월 이성복(12) 교수 강동 경희대병원 치과병원장 취임